

“나들이 많아지는 봄 행락철, 음주운전 안 돼요”

SOCIETY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지난해 3~5월 2892건 적발...사계절 중 가장 많아

최근 3년 사상자 1362명...운전자 인식 변화 필수

나들이가 많아지는 봄철에 음주운전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봄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8525건(광주 3597건·전남 492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790건(광주 1275건·전남 1515건), 2023년 2843건(광주 1212건·전남 1631건), 2024년 2892건(광주 1110건·전남 178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봄철 음주운전 사고 부상자는 1352명(광주 616명·전남 736명)으로, 같은 기간에 10명이 숨졌다.

계절별로 보면 봄철에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1만379건(광주 3883건·전남 6396건) 중 4월이 995건(광주 378건·전남 617건)으로 가장 많았고 3월 964건

(광주 386건·전남 578건), 5월 933건(광주 346건·전남 587건) 순이었다.

이는 봄꽃 축제, 나들이 등으로 인해 음주 기분이 많아지고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단속에 걸리는 문제를 넘어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18일 전남 해남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7시42분 해남군 북평면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

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지인 B씨가 숨졌으며, A씨와 또 다른 동승자

C씨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동승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으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광주 동구에서는 대리기사 가 오지 않아 술을 마신 채로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 D씨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오전 12시24분 동구 소재 인근에서 남성 D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D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기사가 위치를 찾지 못해 잘 보이는

곳으로 10m를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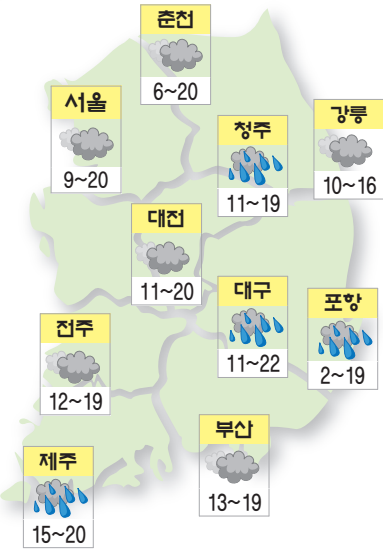
김경태 광주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음주운전 처벌이 조금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분 구제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경찰의 단속 횟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봄철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심야·새벽 시간대 불시 단속, 주요 유출·도심 도로 집중 단속 등을 통해 음주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6:07 달출 16:35
예보 19:01 달진 04:46



광주	구름	13~20
목포	구름	11~15
여수	구름	12~18
순천	구름	12~22
구례	구름	11~21
광주	☀️	
해남	구름	10~19
임도	구름	12~20
흑산도	구름	9~15
전남	☀️	
고흥	구름	10~22
진도	구름	10~16

목포	밀물(고)	00:40 / 13:08
	썰물(저)	05:57 / 18:24
여수	밀물(고)	07:56 / 20:15
	썰물(저)	01:36 / 13:59

문신 시술 30대 ‘집행유예’ 선고...선처 이유는?

법원 “새로운 사회적 합의 필요”

파부집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문신사들은 문신은 의료행위와 아니고 이미 정착된 문화라며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A씨의 변호인 역시 변론 과정에서 “미용 목적의 문신도 의료행위로 일괄 규정, 처벌하는 현행법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유죄로 인정하나 문신 행위에 대해 사회적인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충북 청주 등에서 미용 목적의 눈썹 문신 시술 행위는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느냐며 무죄로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오고 있다. 일부 사건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전남 현직 경찰관들 음주운전 적발...징계 수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전남 현직 경찰관이 잇따라 적발됐다.

9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A순경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전남경찰청 소속 A순경은 전남 오전 2시50분께 광주 광산구 제2순환도로 내 수완지구에서 철단 방면 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순경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순경에게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지난달 15일에는 전남 나주에서 신안경찰 소속 B경감이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해 직위해제 조치됐다.

당시 B경감은 승용차로 표지판을 들이받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현재 전남경찰청은 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갑찰 활동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정보를 발령한 상태다.

경찰은 여러 차례에 걸친 내부 공문 발송을 통해 음주 비위 징계양정 강화를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전 경찰서 순회간담회, 전 직원 참여 릴레이 메시지 활동 등 음주운전 비위에 대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경찰관은 직위해제 조치되며 엄격하게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경찰관의 개인 일탈과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아동돌봄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9일 광주 서구청 돌봄홀에서 열린 ‘아동돌봄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및 아동권리교육’에서 김이강 서구청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성 장애인에게도 주체적 일상 살아갈 권리를”

5·18민주광장서 제17회 여성장애인폭력추방주간 캠페인

여성 장애인들이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차별과 폭력에 맞서 일상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달라고 주장했다.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 및 보호시설협의회 대표는 9일 5·18민주광장에서 제17회 여성 장애인 폭력 추방 주간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에는 ‘차별에 맞서 평등한 일상으로! 폭력을 연대의 힘으로 바꿔내자’란 슬로건으로 20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여성 장애인 폭력 추방 주간을 상징하는 오렌지색 머플러를 두르고 광장에 모였다.

전국을 순회하는 이 캠페인은 올해로 17회째로, 광주에서는 12년 만에 다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선경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 및 보호시설협의회 대표는 “장애 여성의 폭력 피해는 단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문제다”며 “이제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어야 할 때다”고 읊조렸다.

이어 “장애 여성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시민”이라며 “차별 없는 일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식을 바꿔야 하고, 정책은 그 변화에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캠페인에서는 여성 장애인들의 결의문 낭독도 이뤄졌다.

결의문은 여성 장애인 폭력 문제를 개인의 고통이 아닌 억압적이고 위계적인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로 규

정했다. 이들은 “여성 장애인은 성별, 장애, 빈곤 등 복합적인 이유로 고립되고 배려 끝에 내몰리는 현실 속에 있다”며 “폭력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장애 여성들이 끊임없이 배제되고 있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 근절을 위한 연대, 여성 장애인의 주체적 삶을 위한 정책과 실행, 피해자의 목소리를 보장하는 사회 환경 조성, 평등한 사회를 위한 연대 등을 실현 과제로 제시했다.

12개의 홍보부스에서는 여성 장애인을 위한 정책, 피해자 지원 절차, 성폭력 예방 콘텐츠 등을 안내했다.

한편, 캠페인 참석자들은 민주광장부터 전일빌딩을 지나 중앙초, 하늘공원, 다시 5·18민주광장까지 약 1.5km 거리 행진을 진행하기도 했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교회 차 흡재 도주한 10대들

만년필 ○교회에서 습합차를 흡재받아

난 10대 3명이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체포돼.

광주 북부경찰은 9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A군(17) 등 3명을 입건.

A군 등은 지난 8일 오전 2시47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교회에서 습합차를 흡재받아 현의.

중·고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교회 사무실에 있던 차량의 열쇠를 훔쳐 나와 습합차를 타고 도주했다고.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16시간 만에 전북 김제 일원에서 A군 일당을 검거.

무면허인 A군 등은 습합차를 몰고 광주 일대를 돌아다녔으나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 이산화 기자

만남, 당신에 이상형!

바로연

에서 인연을 만나다.

초혼·재혼 결혼전문업체 바로緣 1644-5432/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73 대영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

광주 · 서구 · 국내 · 09 · 0005호

‘만남’에 우연이란 없습니다.